



vol. 03

2018.8 | 희망 원(ONE)고개 마을소식지



희망 원(ONE)고개마을 소식지



원고개 픽(PICK)

(취재문화자)

원고개 마을에 오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산재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북비산초등학교 북편 뒷길에 새로 마련된 **벽화동물원**을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좁고 어두운 우범지대 같은 곳이라 주민들조차도 다니기를 꺼려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정겨운 학교 앞 동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덕분에 요즘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아기자기한 골목으로 변신했다죠. **벽을 따라 걷다보면 귀여운 다람쥐를 비롯하여 반달곰, 사자, 기린, 코뿔소 등 스무여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입체모형으로 생동감 있게 반겨주니 더 예쁘답니다. 학교 앞 동물원으로 놀러오세요~~

학교앞
숲속 동물원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이야기

(취재구분녀)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도시재생 마을 협동조합 교류회가 원고개 다락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페를 하는 곳들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게 너무 궁금하다며 제 1차 교류회 장소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신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원고개 마을 협동조합 방문을 감사드리며 참여조합 소개 및 상호인사를 간단하게 나눈 뒤에 다락방 음료를 마시며 원고개 마을협동조합 운영사례 소개를 우화주 마을활동가께서 하셨습니다. 교류회 참여자분들께서 다락방 근처에 있는 텃밭현장견학을 원하셔서 잠시 들렀다가 우리 마을에서 시원한 냉면을 먹으며 다른 마을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을 둘러본 소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마을 활동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다른 마을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서로에게 좋은 교류회가 되었습니다.



월간 원고개

12월



12월14일

동네부엌 - 겨울 만두빚기



12월21일

원고개 다락방
바리스타 송년의 밤



12월26일

원고개마을
협동조합 간담회

원고개 다락방
작은음악회

1월6일

1월



비봉초 계단길
주민설명회

1월18일, 2월2일

2월



3월

원고개마을
정원사 양성수업

3월15일~6월14일



4월

안전안심마을만들기

4월6일~5월11일



원고개마을
아이들 바리스타 직업체험

4월7일, 4월14일



원고개 뜨개방

4월10일~5월1일



5월

5월1일~6월26일

마을텃밭 도시농부학교



5월25일

동네부엌 - 양장피 만들기



원고개마을
벽화장인 양성교육

5월29일~7월10일



6월

원고개 음악단

6월1일~7월6일



선진지 견학
- 순천 에코지오 마을

6월15일



원고개 나눔마당

6월26일



7월

원고개 음악회

7월6일



원고개 플리마켓

7월7일



원고개마을 동아리 비행기

(인터뷰어-조은정)

Q. 비행기라는 이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비행기가 결성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A. 비행기는 “비산동의 행복한 기타동아리” 라는 뜻입니다. 동네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에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본인도 즐겁고 연주봉사도 가능한 기타를 배워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졌어요.

Q.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A. 모두 비산 1동의 주민이시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A. 경로당에 연주봉사를 가거나 마을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기타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연습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죠.

Q. 제가 음치 박치인데요(^^) 기타배우는 게 가능할까요?

A. 물론이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것 같아요.



Q. 경로당 공연을 해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A. 누군가를 기쁘게 해 줄 기회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고 호응해 주셔서 마음이 즐거운 것과 함께 신나는 악기연주로 제 몸도 저절로 즐거워지는 경험이었어요.

Q.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요?

A. 평소에는 일부러 약속을 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하는 동아리 식구들과 기타연주를 매개로 해서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행복한 기타동아리 비행기는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A. 아직까지 열심히 배우는 중이라 어찌보면 이륙준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작은 재주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불러준다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동아리 비행기가 마을사람들과 행복한 비행을 오래도록 지속하길 바랍니다.



원고개마을 Star

전국노래자랑 우수상 수상자
‘안성재’씨를 만나다 (인터뷰-우화주)



Q 반갑습니다. 실물이 훨씬 잘 생기셨네요. 비산동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하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28살인데요, 수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야구를 했구요. 야구 때문에 경운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비산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으니까 15년 쯤 된 것 같네요.

Q 전국노래자랑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사회인 야구단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별별 일을 다해봤어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성우솔라이트, 일용직근로, 배관, 선반 등등. 많은 일을 경험해봤는데 하던일에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찰나에 전국노래자랑을 서구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하게 되었죠. 하긴, 이전에 야구하면서도 노래하는게 좋아서 잠시 가출해서 가수되겠다고 서울로 가기도 하고, 하하!

Q 전국노래자랑에서 수상을 하면서 안성재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큰 일이 있었죠. 노래자랑을 보고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데뷔준비를 하고 있어요. 곡도 받았구요. 아아~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제목은 ‘땡 잡았어요’ 예요. 6월말에서 7월초에 음반이 발매될 것 같아요. 6월 8일에는 파주에 행사가 있어 가기도 했어요.

Q 곡을 받고 데뷔를 하면 연예인이시네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연예인 생활을 해 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A 생각했던 것 보다 엄청 힘들지만 노래를 부를 때 호응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그럴때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Q 당연히 미혼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여자친구는 있나요?

A 아휴~ 당연히 아직 미혼이구요, 여자친구는 아직 없네요.

Q 우리 원고개 마을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원고개 다락방에 처음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아, 책도 많고 분위기도 아늑하고 참 좋네요. 하하, 웬지 지적인 분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동 웃음)

Q 요즘 우리 마을에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에서 변화된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바라시나요?

A 우선 저희 집 가까이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 정말 좋구요, 여기저기 공사현장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무언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을이 좀 깨끗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리수거장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거리처럼 변화되어가는 우리 마을을 기대해봅니다.

Q 다락방에서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소소하게 버스킹을 진행한 적도 있는데 혹시 시간여유가 된다면 버스킹도 가능할까요?

A 당연히 기회가 되고 불러주신다면 달려와야죠.

Q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음반이 나오면 열심히 홍보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봐야죠.

생글생글 밝은 표정의 동네 청년 안성재씨와의 인터뷰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찜찜한 목소리로 아직 음반준비중인 노래도 들어보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안성재씨의 성공신화를 기대해 봅니다.





원고개 음악단



원고개 음악단.. 무슨 유랑극단 같기도 하고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느낌있는 이름이죠. 바로 “원고개 음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원고개 마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악기를 연습하고 음악회를 준비하는 즐거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마을의 이런저런 일에 앞장서서 재능기부를 해 주곤 했던 기타동아리, 웬지 한 음악할 것 같은 느낌의 플루트 동아리, 음악회에 신나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아직은 좌충우돌 카혼동아리, 어울리지 않을 듯 하지만 좋은 호흡으로 마지막 곡에 힘을 실어 준 사물 동아리 등 각각각색이지만 마을사람들과 행복한 경험을 함께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보태서 준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우리 마을에서도 많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꿈꾸게하는 음악회였습니다. 더 많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원고개 음악단”은 계속됩니다.

원고개 플리마켓

음악회 바로 다음 날 마을의 플리마켓 행사도 있었습니다. 작은 날땀공원 가득 천막과 테이블, 의자, 음향 등이 준비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찬 술렁거림도 함께 했습니다.

조용하고 무료할 수 있는 주말 오후 시간 마을이 축제장으로 바뀌면서 전날 음악회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진행하는 마켓, 여러 단체에서 준비해 준 먹거리마당, 반찬마켓, 재활용 마켓과 마을 도서관에서 준비한 판매 부스, 무료체험 코너 등등... 중앙무대에서는 여러 가지 게임도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묶어두었습니다.

판매액의 10%를 기부받아 마을의 소외계층에게 쓰이기도 한 행사였으니 어느 광고 문구처럼 “재미와 의미”를 함께 한 행사였습니다. 쓰임새는 다했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 지금부터 잘 챙겨두었다가 다음에 또 잔치판 한번 벌여보는건 어떨까요?



소소한 원고개마을 이야기



조은정 달콤한 장미향이 피어있는 북비산 초등학교에 1기 졸업생과 비산 1동장님, 교사와 학생이 참여한 행복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순간을 어린 시절 마을에서의 추억으로 기억할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서 노력하는 비산 1동 원고개 마을 모습이 따뜻해집니다.

임미영 비봉초 근처의 한 빌라 옥상에서 보면 예쁜 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육이 미니정원**을 너무 잘 꾸며놓아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매일 옥상에 올라가 확인하고 혹 다육이가 아픈가(ㅎㅎ) 체크하고 매일같이 얘기도 나누고 넘 보기 좋은 풍경입니다. 본인 자식같이 아끼고 보살피면서 다육이 식고도 놀려줍니다. 다육이 잎이 떨어지면 발뿌리가 내려앉을 때까지 잘 키워 다른 분들에게 분양도 하신다고 하네요, 제 친구도 7~8 종류의 다육이를 분양해 잘 기르고 있습니다.

구본녀 5월30일 30분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원고개시장 화수관이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주택에서 정화조가 넘쳐 빗물에 동물에 상인들이 우왕좌왕 하는 소동이 한동안 벌어졌다고 합니다. 화수관이 역류한 원인은 화수관이 꺼져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관에 시멘트가 들어가서 화수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공사하시는 분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생각과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이 있었다면 정화조가 넘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나보다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상인들은 냄새로 인해 며칠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구본녀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동)는 5.9(화) 원고개시장 옛 골목길에 수년간 방치되어온 쓰레기를 동 각급단체 및 주민 120여명과 함께 서구청으로부터 청소차와 인력을 지원을 받아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골목 내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악취 등 주민생활불편과 화재 및 안전에 우려가 많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30여톤 가량의 쓰레기를 깨끗이 정비하였고 쓰레기가 있던 자리는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를 위해 텃밭상자를 설치하여 인근주민에게 분양을 하였습니다.

우화주 원고개다락방 아기자기한 화분들 사이를 유심히 들여다 보는 한 이웃에게 바리스타 한 분이 말을 건넵니다. “예쁘지예” “아휴, 나도 이렇게 꾸며놓은거 진짜 좋아해서, 저~ 나 요거 가져가도 될까요?”

분갈이하다가 자리가 부족해서 빼 둔 풀 두어포기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흙이 마르지 않도록 흔쾌히 담아서 드리고 한 10분이나 지났을까 ‘우리 집에서 기르던 구피인데 많이 불어나서 요기 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하시면서 알록달록 예쁜 구피를 바가지에 잔뜩 담아서 들고 오셨답니다. 처음에는 분실될 것을 걱정해가면서 다락방 앞에 화분을 내어 놓는 일이 모험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오히려 이웃에게 이런 마음들을 받습니다. 원고개 바리스타들의 행복했던 기억을 공유합니다.

박미경 한창 백합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울 동네 작은 골목정원을 소개할까합니다. 온갖 예쁜 꽃들이 자리를 잡아 서로 멋을 내고 비산 1동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위치는 북비산 초등학교 가기전 서예학원에서 우회전해서 위치하고 있는 두리빌 주차장 안쪽이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꽃이름도 알아보고, 사진도 찍고 도심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꼭 한번 들러보세요~)

마을사람 이야기

다정한 이웃 영채아빠 (글쓴이- 송정호)

"이봐 이봐 지금 뭐하는거야?" "네 무슨말씀인지~~"

"뭘땀에 돌아다니냐고" "범죄 예방차원에서 돌아요 할아버지"

"글쎄 돌면 뭐하냐고 아무소용없어" "왜요 할아버지"

"내가 이동네 50년을 살았는데 저안으로 들어가면 나쁜놈들 천지여 동네가 나이지질않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돌잖아요" "고생은 하는데 백날돌아도 헛일이여 저골목엔 나쁜놈 천지여"

"할아버지 우리가 그쪽도 돌아볼게요" "신경좀써줘 동네좀 좋아지게 수고혀"

"네 조심히들어가세요 할아버지"

근무돌던중 거나하게 한잔드신 어르신과의 대화다 이정도면 정말 고마운거다. 대부분 한잔드신분들은 시비를건다. 다 상대할수도없어 피해버리기가 다반사지만 연세드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동네를 생각하셔서 취하셔도 기분은 좋다 우리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이사셔서 그런지 정감 있어서 좋다.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할때쯤 내아이를 지키고싶고 무언가 내가사는동네에 뭔가 해보고파시작한 방법활동이 그아이가 대학생이니 세월도 좀 흘렀다. 근무중에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내유년시절같아서 혼내기보다 아저씨도 그런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생각하면 많이 후회된다고 설득하곤 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은 총무직이 8년세월동안 할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와중에 방법조직이 너무약해져 주변의 눈총과 시기때문에 좋은 맘으로 나보다 동네를 위해 활동했지만 이제 그만해야하나 하는 갈등을 한적도 많았다. 참고 기다린대 대한 보상인지 다시한번 비산1동 자율방법대가 꿈틀거리고있어서 기분이 너무좋다. 앞으로 더욱더 변창하고 우리 비산1동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길 기대해 본다. 가끔 근무돌면서 엄마손을 잡고 지나던 꼬마가 "아저씨 수고하세요" 라는 말한마디에 나는 또 힘차게 우리동네를 지키고싶다.



편집후기

문명경

마을소식지 편집팀...어렵지않을까? 하는 두려움반 설레임반으로 시작했는데 마을의 작은 소식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질 걸 생각하니 너무 뿌듯하고 아주 작은 보람도 느껴봅니다~~

조은정

편집이라는 걸 해보니 너무 어려웠지만 기사가 완성되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니 너무 설레이네요~~

구본녀

소식지 편집팀이 만들어지고 뭔가를 해야만 하기는 하는데 뭐를 해야할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도 되고~~~ 한번 두번 만나고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해답도 찾아가고 조금은 힘든 여정이었는데 다음번에 소식지를 만든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 하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우화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마을 소식지에 진짜 우리 이야기를 담아보자구요.. 함께 한 편집팀 덕분에 따끈한 마을이야기 책 한 권이 탄생했습니다. 소식지에 다 담지 못한 얘기들은 수다로 풀기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수다로 '이음 4호'를 기약해봅니다~~

박미경

소식지를 통해 이웃과의 소통이 원활해졌으며 저만의 성취감으로 인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임미영

편집이란 걸 처음 접해본 나인데 넘 좋은 경험이었습니. 재미두 있었구 다른분들과 함께 서로 의논도 하고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